

“평상시 배운 심폐소생술이 큰 도움 돼”

전주 삼천초 김숙주 교사
순천서 의식 잃고 쓰러진 환자 구해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주삼천초등학교 김숙주(32) 교사다. 김 교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2일 처갓집이 있는 순천을 방문, 인근 공원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던 40대 남성이 쓰러지더니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됐다. 김 교사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쓰러진 남성 곁으로 다가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다.

김 교사는 “평소 배운대로 했다. 아내에게는 119에 신고할 것을 말하고 저는 10분 이상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면서 “학교에서 매년 받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 교사가 더욱 간절했던 것은 앞서 달리던 아들은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모른 채 운동을 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김 교사는 “제 아이들도 옆에 있는 상황이라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당시에는 힘든 것을 못 느꼈는데 집에 돌아와 긴장이 풀어지니 그때서야 온 몸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당시 의식과 맥박은 되찾았지만 의식이 없었던 남성은 최근 의식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중이다.



전주삼천초등학교 김숙주 교사

김 교사는 “환자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는데 지난 16일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의식회복 소식을 듣고 나니 이제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사는 “방송이나 신문에서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했다는 기사를 보면 ‘특별한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막상 내가 겪어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게 됐다”면서 “응급환자 발생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사람을 살리는 건 의사이지만, 사람을 만든다는 건 교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김 교사는 아이들과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는 “초임 때는 무척 힘들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서 “아이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 13일 순천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조만간 소방서로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서도 받을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금지면, 농촌활력과 일손 돕기

남원시 금지면사무소와 농촌활력과 20명은 가을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도기에서는 지난 태풍으로 쓰러진 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지면 귀석마을에서 벼 세우기(300명)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지원받은 농가는 “행정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일손 돕기에 참여해 주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금지면과 농촌활력과 직원들은 고품위로 인한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2회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봉사단 발대식 진행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석)는 지난 20일 제9회 완주와일드푸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축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행사는 우수 대학교 교양관에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봉사활동에 지원한 1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 날 발대식은 와일드푸드축제 홍보영상을 비롯하여 축제전반 설명, 봉사단 결의문 낭독, 맑은 임무 숙지, 안전지도 및 기본 소양교육 등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일드푸드축제 기간동안 완주를 찾을 방문객들과 함께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 김영석 이사장은 “오늘 발대식을 통해 축제 현장에서의 우리의 임무가 하나하나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불어 강한 책임감과 완주 지역 대표 축제에 참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사업장 금연성공 축하기념식 열어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가 장애인기관(완주 떡메 마을)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성공 축하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기념식에는 완주 떡메 마을 양정숙 원장과 전북금연지원센터 방문분과장 박민희 교수 및 관련자들이 참석해, 완주 떡메 마을 직원들의 6개월 금연성공을 축하했다.

금연 성공으로 축하 기념식에 참석했던 정모(48)씨는 소감을 통해 “금연에 대한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사의 도움을 통해 금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다. 함께 흡연 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심어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주 떡메 마을은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에서는 흡연 대상자들의 금연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금연 성공률이 특히 높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대 미화원 일동 장학금 기탁

전주대학교 미화원 일동(분회장 한정애)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학본관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주대 이효인 총장과 한정애 분회장을 비롯한 대학 및 미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기탁한 300만원은 전주대 미화원 노동조합 한정애 분회장, 정애진 부분회장을 포함한 55명이 장학금 전달에 뜻을 모았다.

한정애 분회장은 “전주대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자식과 같은 전주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효인 총장은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한결같이 학교가 깨끗하고 학생들의 표정이 밝다고 칭찬해준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가장 크게 기여해주고 있는 미화 여성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학교를 향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이리라이온스클럽, 소외계층에 이불 15채 기탁

국제라이온스클럽 356C 지구 이리라이온스클럽(회장 김경수)은 19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망성면 행정복지센터에 겨울 이불 15채(11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이리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수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지역사회의 저소득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석 망성면장은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이리라이온스클럽에 감사드린다”며 “사랑의 온기로 가득한 이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3일 (월) 22:48 (서노출)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99)98912 전주신문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

발행·편집인 조보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 | | | |
|--------------------|--------------------|--------------------|--------------------|
| 전주시 010-9845-4113 | 중앙지사 010-9888-6874 | 남원지사 682-3896 | 고창지사 563-6889 |
| 순창지사 010-2333-4791 | 인후지사 246-6855 | 김제지사 547-8855 | 완주지사 010-9842-2725 |
| 서신지사 272-9417 | 손천지사 255-2404 | 완주지사 246-8855 | 진안지사 433-3084 |
| 영지지사 010-9845-9855 | 팔복지사 253-6844 | 남원지사 682-0995 | 정읍지사 538-3387 |
| | 군산지사 010-6789-0208 | 남원지사 682-0444 | 장수지사 010-3882-8157 |
| | 익산지사 659-9823 | 부안지사 010-2425-4182 |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행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